

전문대학유치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3. 7.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우리시는 10개 고등학교에서 매년 1,500여명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나 대학교육시설이 전무하여 극히 일부는 서울로,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지방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택지개발사업·신도시건설·LG Philips유치등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급인력 부족이 심각한 지역 현안이 되고 있어 市有地를 활용하여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문산읍 내포리 산120번지 일원에 신홍대 파주캠퍼스 유치

▪ 필지수 : 2필지 면적 : 68,012m'(20,573평)

▪ 2년제 전문대학(2개학과 480명)

○ 탄현면 금산리 산41-1번지 일원에 국제외식관광대학 유치

▪ 필지수 : 12필지 면적 : 188,553m'(57,037평)

▪ 2년제 전문대학(11개학과 880명)

☐ 관련계획서 : 별 첨

시유지활용전문대학유치계획안

1. 대학유치의 필요성

- 파주시는 '96년 3월 1일 市승격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로 대학교이상
고등교육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대학시설이 전무하여 서울과
지방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 ▶ 관내 고등학교수 : 10개교 12,300명
 - ▶ '96년 시승격이후 인구 37% 증가(170,975명 → 234,543명)
 - ▶ 2008년 인구 553천명 예상
- 특히, 파주시의 경우 ASE코리아와 한국시그네틱스 등 대기업을
비롯해 1,3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지해 있으나 산학협동을 통한
인재 양성과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 LG PHILIPS사가 파주지역에 50만평 규모에 100억불을 투자하여
공장설립을 진행되고 있어 대학설립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 더욱이 정부에서 교하지역에 275만평의 운정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142천명의 인구가 한꺼번에 늘게되어 자족도시 정책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학설립이 필요한 시기임

2. 대학유치 경위

○ 신흥대학 파주캠퍼스

- ▶ 2002. 11. 14 파주시 - 신흥대간 분교설립 협약서 체결
- ▶ 2003. 2. 20 신흥대 파주캠퍼스 설립 제안서 제출

○ 국제외식관광대학

- ▶ 2003. 3. 6 특수목적대학 설립 제안서 제출

3. 대학규모 및 설립목표

구 분	신흥대학 파주캠퍼스	국제외식관광대학
설립주체	재단법인 신흥학원 (의정부 호원동 117)	학교법인 태성학원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 리367)
학교종별	2년제 전문대학	2년제 전문대학
개설학과	· 2개 학과 480명 - 인문사회 : 1개 학과 240명 - 공 학 : 1개 학과 240명	· 11개 학과 880명 - 인문자연개열 5개 과 - 자연개열 5개 과 - 예체능계열 1개 과
설립목표	· 2004년까지 정관변경 승인 · 2006년까지 건축 및 설립인가 · 2007년 개교목표	· 2003년까지 법인설립 허가 · 2004년까지 건축 및 설립인가 · 2005년 개교목표

4. 대학유치 지역

○ 신흥대 파주캠퍼스

- ▶ 문산읍 내포리 산120번지 일원
 - 市有地 2필지 68,012㎡(20,573평)

○ 국제외식관광대학

- ▶ 탄현면 금산리 산41-1번지 일원
 - 市有地 12필지 188,553㎡(57,037평)

5. 대학유치 행정지원 내용

○ 사유지 매각에 관한 사항

- ▶ 법인설립허가를 전제로 市 - 추진주체간 토지사용 약정 체결
- ▶ 약정 체결시는 법인설립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명시
- ▶ 향후, 법인설립허가를 이행한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 ▶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관련법 절차에 따라 매각

○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

- ▶ 법인설립허가 후 학교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반영 등 행정 절차 이행

6. 대학 위치에 따른 기대효과

○ 대학은 행정구역이나 지역사회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외 사회나 지구촌 어디와도 쉽게 연계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조직으로 지방자치와 세계화 시대에 외국 기술이나 외국 인재를 도입하는 창구로서의 기능과 지역사회를 객관화해서 관찰하고 비평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각(視角)과 시점(視點)을 제공.

▪ 지역발전에 대학의 역할

- ▶ 대학 연구성과의 지역기여
- ▶ 지역사회의 "씹크탱크(Think Tank)"
- ▶ 지역정보기지
- ▶ 지역간 경쟁력 지원체
- ▶ 지역진흥의 견인차 역할

▪ 기타 대학의 역할

- ▶ 저소득층 자녀의 특별전형 및 장학금 지원
- ▶ 대학의 문화·예술행위 지역주민에게 개방
- ▶ 지역 유흥인력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도모 등

대학설립행정절차

① 입지선정 ↓ [지방의회의 사전협의 매매약정서(사용승락서)] ② 법인 설립·변경허가 신청 ↓ [허가여부검토(교육인적자원부) 도시관리계획반영(파주시)] ③ 수도권 정비실무위원회 ↓ ④ 수도권정비위원회 ↓ [국무조정실 총리재가 건교부 통보 교육부 통보] ⑤ 법인 설립·변경허가 ↓ [도시계획시설 결정(파주시) 국공유지 매각 시의회 의결 토지매각(파주시→법인)] ⑥ 건축허가신청 ↓ ⑦ 대학설립인가신청 ↓ ⑧ 건축물 준공 ↓ ⑨ 교육부 현지심사 ↓ ⑩ 대학설립인가 ↓ ⑪ 학생모집 및 개교	학교·파주시 학교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 ⇒ 건교부 건교부 교육부 ⇒ 학교 학교 ⇒ 파주시 학교 ⇒ 교육인적자원부 파주시 교육부 교육부 학교
---	--

전문대학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견

검 토 보 고

이 의견청취의견은 2003년 7월 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우리시는 10개 고등학교에서 매년 1,500여명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나 대학교육시설이 전무하여 극히 일부는 서울로,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지방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 최근에는 택지개발사업·신도시건설·LG Philips 유치등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급인력 부족이 심각한 지역 현안이 되고 있어 市有地를 활용하여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문산읍 내포리 산120번지 일원에 신홍대 파주캠퍼스 유치
 - 필지수 : 2필지
 - 면 적 : 68,012m²(20,573평)
 - 2년제 전문대학(2개학과 480명)
- 탄현면 금산리 산41-1번지 일원에 국제외식관광대학 유치
 - 필지수 : 12필지
 - 면 적 : 176,331m²(57,037평)
 - 2년제 전문대학(11개학과 880명)

3. 검토의견

- 동 의견청취의견은 우리시가 지난 1996년 3월 1일 시 승격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학시설이 전무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관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와의 산학협동을 통한 인재 양성과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LG Philips사의 대규모 공장설립에 따른 고급인력의 확보와 특히 교하 운정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거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파주시 관내에 대학설립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유지를 활용하여 관내에 2개의 전문대학을 유치하고자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임.

○ 금번 집행부가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관내 전문 대학유치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 청취는 물론 대학유치에 기본 전제가 되는 시유지 매각 문제 등에 대한 의회의 의견에 따라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 향후 대학유치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을 정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우리시가 유치하고자하는 전문대학은 (재) 신흥학원의 신흥대학 파주캠퍼스와 학교법인 태성학원의 국제외식관광대학으로 2개 대학의 설립제안서가 현재 우리시에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음.

▶ 2003. 2. 20 신흥대 파주캠퍼스 설립 제안서 제출

▶ 2003. 3. 6 특수목적대학(국제외식관광대학) 설립 제안서 제출

□ 대학유치 검토지역 및 규모

[신흥대 파주캠퍼스 유치]

- 문산읍 내포리 산120번지 일원
- 필지수 : 2필지
- 면 적 : 68,012m²(20,573평)
- 2년제 전문대학(2개학과 480명)

[국제외식 관광대학]

- 탄현면 금산리 산41-1번지 일원
- 필지수 : 12필지
- 면 적 : 188,553m²(57,037평)
- 2년제 전문대학(11개학과 880명)

- 우리시가 2개 전문대학의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사유지를 제외하고 신흥대 파주캠퍼스는 문산읍 내포리 산120번지 일원 시유지 2필지 68,012㎡(20,573평)이며, 국제외식관광대학은 탄현면 금산리 산41-1번지 일원 시유지 12필지 188,553㎡(57,037평)로 총 14필지 256,565㎡(77,610평)임.
- 핵심 쟁점인 시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관내에 전문대학 유치를 위해 시유지를 학교법인에게 매각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시유지 매각의 적정성, 형평성 및 특혜성시비, 매각의 당위성 확보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대학설립을 전제로 시유지를 매각하게될 경우 먼저 파주시와 추진 주체간의 법인설립허가를 전제로 토지사용약정을 체결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이행한 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관련법에 따라 매각 처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 대학유치에 따른 긍정적 측면

- 관내 대학유치를 통해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은 물론 지역사회의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과 대학 연구성과의 지역사회의 접목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정보의 기지로 활용할 수 있음.

- 관내 고등학생들의 입학을 통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층 자녀의 특별전형 및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의 시설과 문화예술의 지역주민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 또한,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부분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 기존 우리 시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교육도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 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대학유치에 따른 부정적 측면(예상 문제점 등)

- 법인설립허가를 전제로 시와 추진 주체간의 토지사용 약정체결 후에도 수도권 정비실무위원회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절차 및 법인설립허가와 대학설립인가 등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인 능력과 대학설립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법인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며,
- 특히, 토지사용 약정체결 후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도시계획 시설결정(학교용지) 되고 시유지를 매각한 상황에서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나 추진 주체인 법인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뢰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시유지의 환수 및 도시계획시설의 재변경 등 행정적인 혼란 발생이 우려되며, 시유지의 경우 법인측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소송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

- 또한, 관내 유치가 확정되어 개교준비중인 웅지세무대학의 경우, 사유지 제공 없이 100% 사유토지를 취득하여 설립 중인 상황에서 2개 전문대학에만 사유지를 제공할 경우 형평성 문제와 특혜성 시비의 우려가 있으며,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예정)에 따라 동법 개정이후에는 우리 시에도 4년제 대학의 설립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사유지에 대학 유치라는 전제라면 2년제 전문대학의 유치는 설득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지방대학의 경우 학생수가 부족하여 정원을 채우지 못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대학설립인가를 받아 대학설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향후 정원미달 사태 등이 우려됨에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대학유치에 따른 종합의견

- 우리시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하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학교법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유치를 위해 시에서 적극적인 유치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직한 조치일 수 있겠으나 특정 법인의 학교설립 부지로 사유지를 제공하는 것은 특혜성 시비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건교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우리 시 지역에도 4년제 대학의 설립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학유치 조건이라면 전문 대학 보다는 4년제 대학의 유치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토지의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유토지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는 보다 공익적이고 수익적인 측면으로의 활용이 요구되며,
- 특히, 우리시는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와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 북한주민들의 탈북 및 이탈 등에 대비한 이주대책 등 여러 가지 가능성과 공익적인 개발수요에 대비하여 가급적 시유지를 현재대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2개 전문대학 유치계획중 신홍대학의 경우는 시유지 이용면적이 크지 않고 이미 대학을 운영중인 학교법인체로서 파주분교 설립이 용이하다고 판단됨.